



평택의 명산 '부·덕·고·백' 벗과 함께라면 더 좋은 명산(山) 오르기

부락산 입구

경기도 평택의 명산인 부락산-덕암산-고성산-백운산을 잇는 종주길은 30km가 넘는데, 이 코스는 '부덕고백'으로 불릴 정도로 인기가 있다. 만만한 산은 아니다. 그래도 산세가 완만하고, 녹음이 울창한 숲길로 트레킹과 등산의 장점을 고루 맛볼 수 있어 상쾌하다. 가파른 곳에서 부담 없이 손잡을 수 있는 지인과 이야기도 나누고, 간식도 먹으며 올라보자.

이충 분수공원~흔치휴게소(1.9km)

가벼운 등산화, 시원한 얼음물, 달콤한 과일 한두 개 배낭에 넣고 걷기 시작한다. 부덕고백의 첫 시작은 이충분수공원이다. 공원 구석구석이 깔끔하고 단정하다. 시원하게 솟구치는 분수, 노는 어린이, 산책하는 반려견도 만날 수 있다.

제법 자란 편백 군락지를 지나면 부락산 등산로 입구다. 나무와 바춌로 잘 정비된 등산길을 천천히 걷는다. 1.0km의 오르막 내리막 산길을 30분 정도 걸다 보니 바닥에 도토리 껍질이 눈에 띈다. 곧게 뻗은 상수리나무 어딘가 숨어 있는 다람쥐가 튀어나올 것 같다.

흔치휴게소~생태탐방로(0.4km)

시원한 정자와 편안한 벤치에는 함께 온 지인과 이야기하는 시민들로 북적이다. 이곳은 화장실, 음수대, 운동기구를 갖추어 한숨 돌리기에 좋다. 본격적인 산행을 앞두고 삼남길 표지판 앞에 설치된 진드기 기피제를 뿌리는 것도 좋을 듯싶다. 진드기, 모기 등 귀찮은 벌레를 피하는 방법의 하나다.

질푸른 잎에서 뿜어져 나오는 청량한 피톤치드 가득한 숲길을 꽃길인 양 시뻘시뻘 걸어보자.

생태탐방로~덕암산 정상(2.8km)

한적한 숲길에서 만나는 등산객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넨다. 조금 가파른 내리막을 지나면 고라니 등 야생동물이 위험한 차도를 피해 이동할 수 있는 생태탐방로다. 탐방로 아래에는 자동차들이 쉴 새 없이 달린다. 소음을 피해 발걸음을 재촉해 덕암산 입구로 올라가면 다시 숲길이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목에 두른 수건이 축축하다. 잠시 벤치에 앉아 차갑게 얼린 물 한 모금을 마신다. 땀도 식히고 하늘, 나무, 풀에 눈길이 간다. 초록으로 가득한 세상, 낯설지만 편안하다. 새소리, 바람 소리가 들린다.



부락산 안내판



덕암산 전경

소나무, 도토리나무, 자작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며 바스락거린다. 정상을 앞두고 산세가 가파르다. 천천히 숨을 고른다. 내려오는 이에게 정상이 가까운지 거꾸 묻고 힘을 낸다. 164.5m 덕암산 정상. 성취감으로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진다. 고백해야 할 부덕(?)은 많지만, 다음 기회로 미룬다. 부덕고백의 첫 코스를 완주하니 다음 일정에 대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긴다.

덕암산 정상~부영바위(1.2km)

8월 중순 덕암산 정상. 햇빛은 여전히 따갑지만, 덕암산 정상으로 향하는 길에는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키 큰 나무에서 건강한 피톤치드가 뿜어 나온다. 천천히 걸으니 나무 사이로 제법 서늘한 바람이 땀을 식혀 준



덕암산 정상



백련봉 기는길

다. 도시는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산은 계절에 맞게 분명 달라지고 있다. 덕암산 정상에서 부영바위로 향한다. 부영바위는 바위 모양이 부영이를 닮았을까? 호기심으로 걸음을 재촉했다. 깊지 않은 산속 우람한 나무에 동지를 튼 부영이가 많아서 부영바위라고 불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름에 담긴 소박한 이야기가 가슴에 와 닿는다.

부영바위~백련봉(5.2km)

부영바위에서 덕암산 자락을 타고 가볍게 하산한다. 이곳은 등산객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구간이다. 도로를 가로질러 백련봉 쪽으로 가야 하기 때문이다. 경부고속도로를 오른편에 두고 700m쯤 걸어가다 보면 짧은 터널과 만난다. 공사 차량의 왕래가 잦은 곳이니 사방을 살피고 조심해야 한다. 도로를 지나 백련봉으로 향하는 구간은 완만하고 한적하다. 숲길 바닥은 채 익지 못한 알밤과 도토리가 지천이다. 길도 고르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백련봉~3.1운동 기념관(2.1km)

백련봉에서 내려오면 바로 만세 고개와 3.1운동 기념관이 보인다. 안성지역 만세운동 관련 유물과 독립운동가의 시당과 위패가 봉안된 3.1운동 기념관을 둘러보니 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원래 이름은 성은고개였으나 독립정신과 역사를 기리기 위해 1991년 '만세 고개'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곳이 바로 고성산 입구다. 만세 고개엔 땀을 식힐 수 있는 카페와 식당



무한성에서 본 풍경

도 운영 중이다. 넓은 주차장도 있어 산행하기 편리하다. 고성산은 지역 주민이 자주 찾는 등산 구간으로 바닥도 단단하고 계단과 줄도 잘 정비되어 있다. 오고 가는 등산객도 많아 가벼운 인사를 건네는 일도 즐겁다. 가파른 오르막길 시원한 내리막길이 반복되니 지루할 틈이 없다. 종턱의 작은 정자에 오르니 시비가 눈에 뿜다. '차운산 바위 위에 하늘은 멀어 산새가 구슬피 울음 운다~'라는 시인 조지훈의 시 완화삼의 구절구절이 새삼 다르게 느껴진다. 해발 298m 고성산 정상에 오르니 사방이 확 트여 시원하다. 깨끗하고 맑은 하늘 아래 평택시가 한눈에 보인다. 저 멀리 용인시까지 눈에 들어오니 장관이다.

고성산 정상~운수암~무한성 둘레길(2.1km)

조선 시대 영조 때 창건해,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이 친필현판을 내리고 중건했다고 전해지는 운수암. 중앙의 대웅전 옆 비로전에는 석조비로자나 불좌상(고려 시대)이 봉안되어 있고, 경기 지역 소규모 암자 형태가 잘 보존되어 있으니 천천히 둘러보는 것이 좋겠다. 운수암을 왼편에 두고 무한성 둘레길을 걷는다. 삼국시대에 축조됐다고 추정되는 무한성은 흙과 돌로 만든 산성이다. 이 높은 곳까지 흙을 나르



운수암

고 단단하게 다졌을 당시 사람들의 정성이 온전히 느껴질 정도로 아무진 토성이다. 이 구간은 누구나 쉽게 걸을 수 있는 완만한 숲길이다. 둘레길 주위에는 나무가 빽빽해 하늘조차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20분 정도 걸으면 반재 저수지·안성시 공도읍·평택시 용이동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명당을 만난다. 시원한 풍광을 여유롭게 조망할 수 있는 벤치도 있어 한숨 돌리고 인증샷 찍기에 딱 좋다.

백운산 입구~백운산 정상(1.2km)

운수암에서 백운산으로 가는 길은 산 종턱을 깎아내는 공사로 진입조차 어렵다. 등산로를 찾을 수도 없다. 공사가 마무리되면 등산로가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초보자는 백운산 입구(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367-2)를 찾기 쉽지 않으니 미리 주소와 지도를 숙지해 도전하는 게 좋다. 백운산은 조용하고 완만해 초보자가 등반하기도 큰 무리가 없다. 추석을 앞두고 굶어진 밤송이들이 눈길을 머물게 한다. 평지와 오르막길을 40여 분 오르면 등산 중 쉽게 볼 수 있는 쉼터와 만난다. 쉼터 가운데 백운산 '정상'이라고 쓰여 있는 소박한 팻말을 보고도 과연 이곳이 정상일까 순간 의심하게 되지만 190m의 아담한 백운산 정상 이 반갑고 정겹다.

에필로그

부락산, 덕암산, 고성산, 백운산을 증주하는 '부덕고백'은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시민까지 즐겨 찾는 등산 코스로 유명했다. 그러나 운수암과 백운산을 잇는 구간이 공사로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깝다. 서운한 마음을 뒤로하고 백운산 입구로 이동해 등산을 계속했지만 터널·고속도로·산업단지 신설로 사라지는 산·나무·길의 소중함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부덕고백' 증주! 차근차근 걸으며 만난 산·바람·나무·꽃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

시민 중심
새로운 평택

엄격한 품질관리와 첨단 농업기술, 그리고 땀과 정성으로 만든 최고의 프리미엄 농특산물 슈퍼오닝!!

Super  ning

평택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평택시 농특산물 사이버장터
www.ptfarm.go.kr



한국고품질 브랜드
3년 연속 전국 우수브랜드 선정

2016, 2017, 2018 소비자평가 국가대표브랜드 대상 3년 연속 수상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부분 대상 수상